

산에서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

1. 지자체명 : 난토시(南砺市)
2. 발표자명 : 가미타이라(上平)중학교
3. 활동명 : 학교숲 잡초베기 · 줄참나무심기, 숯가마 만들기
4. 활동 기간 : 1949년부터 현재까지
5. 활동 장소 : 가미타이라 지구내 (학교숲, 가쓰라호수(桂湖)주변)
6. 활동 참가인원 : 2005년도에는 학생27명, 및 보호자와 교직원
7. 활동을 시작한 경위

1949년부터 가미타이라무라(上平村, 현재는 난토시)의 발전을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. 그 전통을 이어 받아, 지금도 매년 학교숲 그늘에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나무심기를 실시하고 있다.

8. 발표 요지 :

- ①가미타이라지역, 가미타이라중학교의 소개
- ②역사와 배경, 2005년도 활동의 소개

가 : 잡초베기 · 나무심기

- 본교에는 1949년부터 학생들이 가꾸어 온 숲이 있으며, 그 이후로 매년 잡초를 뽑고있다.
- 2005년도 보호자와 교사의 협력을 얻어 전교생 27명이 잡초를 뽑았다.
- 그 때, 지역 산림조합에서 숲의 역할과 자연을 보존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배웠다.
- 작년에는 숲의 환경 변화에 의해 산이 거칠어지고 또 곰이 인가 근처까지 출몰하는 등의 사건이 일본 각지와 현대에서 일어났으며 가미타이라지역에도 곰이 출몰했다. 그래서 곰과의 공생, 자연 보호를 위해서 곰의 먹이인 줄참나무를 심었다.

나 : 숯가마 만들기

- 목재를 숯가마로 구워, 목탄으로 만들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 숯구이는 산에서의 주요한 산업이었다.
- 가미타이라지역도 이전에는 숯구이가 번성했지만 전기나 가스의 보급과 함께 점점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다.
- 2005년 종합 학습시간에는 「산에서 산다」라는 테마로 지역분들의 협력을 받아 숯가마 만들기에 도전했다.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옛 선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다.

③정리